

安 “비상시국 등판 불가피”…鄭·千·李 “대선 패배 책임”

첫 TV 토론회…안철수 출마 싸고 1대3 설전

안철수·이인주·정동영·천정배 順 기호 배정

국민의당 대표 경선

국민의당이 14일 공명선거 선포식에 이어 첫 TV토론회를 개최하면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을 올렸다.

이번 전대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는 합동연설회가 열리지 않고, TV토론회만 5차례 개최됨에 따라 TV토론회가 당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당 대표 후보자 기호추천 결과 1번은 안철수 전 대표, 2번은 이인주 의원, 3번은 정동영 의원, 4번은 천정배 전 대표로 각각 결정됐다.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격돌했다. 특히 이인주·정동영·천정배 후보(기호 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3대 1’ 설전이 벌어졌다.

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안 후보의 이번 출마가 ‘성급한 조기 등판’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대선 패배 책임론, 사당화 논란 등 안 후보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천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 후보는 “안 후보가 당을 살리기 위해 많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위원회를 많이 만든 정부가 대개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시 “안 후보는 당이 지금까지 어려워지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서 “당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데 울고 싶은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도 보통 상황이라면 (제가) 안 나서겠지만 당이 소멸할 위기에 있기에 (등판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이처럼 안 후보가 조기 등판의 주요 명분으로 “당 위기 상황”을 내걸자 정 후보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 같다”고 반격했다.

또 국민의당의 고질적 문제인 꾸준히 거론됐던 ‘사당화 논란’도 안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이에 안 후보는 “제가 당 대표를 했던 시절은 굉장히 짧고 그동안 주로 다른 분의 리더십 아래 (당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소통 부재 능력 부족’ 지적에는 “소통을 위해 노력은 계속했지만 부족한 점은 사실”이라며 “계속 노력할 각오”라고 답했다.

안 후보에 대한 공격은 시종일관 계속됐다. 정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는 겉때기였고 누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른 것이 사당화의 폐해였다”고 비판했으며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내세운 극중주의에 대한 실천방안이 분명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공세가 이어지자 안 후보 역시 간간히 역공을 취했다. 그는 탈(脫) 호남 논란에 대해 “천 후보가 오히려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 시절에 ‘호남에서 표가 떨어져야 영남에서 표를 얻는다’고 하는 등 탈호남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으며 정 후보를 향해 “정부가 당의 모든 국정 과제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살려보겠습니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천정배(왼쪽부터)·정동영·이인주·안철수 후보가 연설에 앞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국회 18일부터 2주간…국정감사 추석 전·후 ‘신경전’

4당 원내대표 회동…김יש수 헌재소장 임명동의 처리 공감대

여야는 14일 정부의 예산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열고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9월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전에 하자’는 여당과 ‘추석 이후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갈려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인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정부 예산) 결산뿐 아니라 법안 통과

에 노력하라는 정 의장의 당부에 따라 합의를 했다”며 이 같은 일정 조율 내용을 소개했다.

강 원내대표인은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 나머지 문제는 합의된 바가 없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는 9월부터 하는데 국감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 3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했고,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월 국정감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국무위원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향후 5년 정책을 세팅하고 난 뒤에 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장류 중의 김יש수 헌재소장 임명동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리 날짜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여·야·정 협의체 문제와 관련한 정 의장 참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니친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정우택 대표는 본회의의 표결로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만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지지율 ‘날개없는 추락’

리얼미터, 5.4% 최하위…호남 5%P 떨어져 11.9%

국민의당 지지율이 원내 5개 정당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여론사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성인 남녀 254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1.9%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7%포인트(p) 내린 71.8%를 기록했다. 14일 밝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0.4%p 오른 21.3%, 모름 또는 무응답은 6.9%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간접계 대비 0.8%p 하락한 49.8%로 2주 연속 떨어졌다.

이로써 민주당의 지지율은 5월 3주차부터 11주 동안 유지한 50%대를 지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0.4%p 오른 16.9%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각각 0.8%p, 0.4%p 상승한 6.5%, 6.2%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지난주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4%(1.5%p ↓)로 하락해 다시 오차범위 내의 최하위를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16.9%→11.9%)에서 다시 10%대 초반으로 내려간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야, 文정부 외교·안보관 맹공 속 사드 배치 압박

한국당 “대북정책이 ‘文 패싱’ 낱아”… 국민의당 “존재감 미미”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권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관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지난주 발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측정 결과를 근거로 조속한 사드배치를 촉구했으며, 국민의당은 현 정권이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대북 평화

구결 정책이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 사드 기지 내 전자파·소음측정 결과를 언급, “그동안의 사드 소동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개그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봐야 대외 신속하게 사드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사드배치를 연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주도권을 문제 삼았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미국과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확실히 보내야 한다”며 “외교적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가 안 보인다”며 “북·미가 대결하다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으로 전환하는 양상인데 한국은 두 손 놓고 미국과 중국의 협의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포대’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나온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것”이라며 “북·미가 얽힌 핵미사일 문제를 단 한 번의 묘수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리즘에 한숨만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연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론 추가 소식이 뉴스거리고, ‘북의 도발은 내부결속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도 뉴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안이한 안보의식 발언을 자제해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탄핵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분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p> <p>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div> 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	---	--	--